

순천향 개원기념 특집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월의 시

— 김남조

어쩌면 미소 짓는 물여울처럼
부는 바람일까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언저리에
고마운 햇빛은 기름인양 하고

잔물결 큰 물결의
출렁이는 비단인가도 싶고
은물결 금물결의
강물인가도 싶어

깊은 화평의 숨 쉬면서
저만치 트인 청청한 하늘이
싱그런 물줄기 되어
마음에 빗발쳐 온다.

보리가 익어가는 푸른 밭 밭머리에서
유월과 바람과 꽃보리의 시를 쓰자
맑고 푸르른 노래를 적자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또 보리밭은
미움이 서로 없는 사랑의 고을이라
바람도 미소하며 부는 것일까



표지설명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개원기념을 맞아 백년을 향해 흔들림 없이 인간사랑이라는 설립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뿌리 깊은 나무와 풍성한 나뭇잎을 순천향 로고 컬러로 형상화하여 벽을 뚫고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순천향

2022.05+06

Vol. 71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8



12



14



18



22

2	SPECIAL	순천향대학교 병원 개원 특집
8	LOVE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와 장홍심 김완주 모녀 환자
10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2	FOCUS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은지 간호사
14	DOCTOR	박재홍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18	VISIT	순천향대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22	WITH	가장큰태평양약국 이예형 약사
24	ISSUE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 리모델링
26	ISSUE	부천병원, '안와골절 치료 디지털화' 초석 마련
28	ISSUE	천안병원, 암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24시간 확대 운영
30	ISSUE	구미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32	KNOWLEDGE	'당뇨발'과 '우울증' 관계 논문 발표
34	KNOWLEDGE	'중이염'
36	KNOWLEDGE	'파킨슨증후군'
38	KNOWLEDGE	'전립선 비대증'
40	EQUIPMENT	서울병원 의료장비, '고해상도 항문직장 내입검사기'
42	NEWS	

「순천향」 통권71호

발행일 2022년 5월 21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2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2022~1974

향설 박사의 순천향, 철저히 의료 사각지대에서 시작된 인술의 시작!



강가에서 사색에 잠겨있는 순천향 설립자 서석조 박사

향설 서석조 박사는 1974년 한남동과 1979년 구미, 1982년 천안, 2001년 부천에 연이어 병원을 열었다. 지방에 병원을 세운 것은 보건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구석구석까지 인술의 손길을 뻗기 위함이었다. 순천향병원은 모두 대도시의 눈에서 보면 '오지'에 가까운 지역이다. 장사가 잘 되는 입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원이 별로 없는 지방의 소도시인

오지로 택한 것은 오직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골고루 베풀겠다는 취지가 있어서다. 서 박사가 평소 얼마나 약자를 생각하고 공익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순천향 가족은 개원 기념일에 즈음하여 앞으로도 오롯이 인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순천향 정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병원이 돼야”

순천향대서울병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일 동은대강당에서 열린 서울병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장기근속 및 모범 직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4월 1일 동은대강당에서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근속 및 모범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이현옥 (주)상훈유통 회장이 병원발전 기금을 기부했다. 30년 근속 표창은 중앙혈액내과 원중호, 소아청소년과 이우령, 병리과 김동원 교수 등 20명이, 20년 근속표창은 안과 이성진 교수와 안전보건관리팀 진현수 계장 등 38명, 10년 근속 표창은 정형외과 김용범 교수와 약제팀 신미란 과장, 재활치료팀

윤대석 대리 등 32명이 받았다. 모범직원 표창은 내과 장민경 전공의를 비롯해 병동간호팀 김정숙 계장, 에스텍 김준수 주임 등 15명이 수상했다.

이어 주식회사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이 병원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했다. 이현옥 회장은 1975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인연을 맺고 2013년부터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재 병원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간사랑을 실천해온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환자와 교직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인간사랑 이념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순천향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되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철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새로워지고 미래 의학의 트렌드를 선도하면서도 설립자의 뜻에 따라 더 화합하는 병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순천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병원

‘하나의 순천향’ 되어 변화하는 의료환경 신속하게 대응해야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21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제21주년 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4월 1일 순의홀에서 '제21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4월 2일 개원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번 기념식은 식전 영상으로 병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 교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보직자와 표창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기념식에 참석했다. 개원 21주년을 기념해 석현 재활의학과 교수 등 91명이 '장기근속 표창', 서준 심장내과 교수 등 21명이 '모범직원 표창', 임대로 외과 교수가 '향설 연구지원사업 공모상(국책과제 연구)', 한상수 응급의학과 교수 등 3명이 '향설 연구논문상'을 받는 등 병원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 연구 역량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교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출하게 기념식이 진행되어 아쉽다.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표창을 받으신 교직원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병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원격 비대면 진료 확산 대비',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정립에 따른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진료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지역 의료전달 체계 확보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끝으로 코로나로 약화된 직원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회복하고, 하나의 순천향이 되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에 개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설립자 향설(鄕雪)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을 따르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현재 경기 서부권역 거점병원으로서 2백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연속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경기도 1위·전국 2위', '2차 환자경험 평가 전국 1위' 선정 등 환자 중심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다.

천안병원

대한민국의 메이오클리닉을 꿈꾸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40년, 큰 사랑 실천의 역정



2024년 완공되는 새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이어 1982년 문을 연 천안병원은 지난 40년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오롯이 보듬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것이다. 천안병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선진기술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및 지역 병의원과의 긴밀한 상생협력으로 지역 보건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했다.

내·외적 알찬 성장, 지역사회 발전도 견인

천안병원 개원 당시 장항선이 지나가는 충남 일대는 변변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천안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원함으로써 의료취약지라는 충청권의 오명을 일거에 벗겨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병상 규모를 6배 넘게 키워냈고, 외적인 성장 뿐 아니라 의학수준 등 질적인 성장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개원 30년을 지나면서는 암 치료,

장기이식, 응급의료 등 수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새로운 모범을 세우면서 명실상부 '중부권 최종거점병원'으로 우뚝 섰다.

'인간사랑'으로 거둔 결실

천안병원의 40년 역사를 관통하는 설립 정신은 '인간사랑'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사랑 실천이다. 천안병원의 인간사랑 40년은 밖으로는 지역발전으로, 안으로는 '새병원'과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차례차례 개원을 앞두고 있는 두 새병원도 순천향의 큰 사랑 실천의 역정이며, 순천향 설립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해내는 위대한 도전이다.

두 새병원은 중부권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을 온전히 보듬어내며,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근거리에 위치한 순천향대의대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의 교육 및 연구역량과 더해져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는 중부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다.

40주년 기념 엠블럼, 성장과 도전·발자취·조화와 협력



천안병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한 엠블럼을 공개했다.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천안병원이 자체 제작한 엠블럼은 ▲성장과 도전 ▲발자취 ▲조화와 협력을 담고 있다. 앞부분 '4'의 일부분을 상승하는 화살표로 표현하여 40년을 넘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천안병원의 미래비전을 담았다. '0'은 4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나무의 나이테를 의미하며, 천

안병원이 걸어온 인간사랑 실천과 생명존중의 40년 발자취를 나타냈다. 또한 4개의 원들은 파동 형상을 하고 있다. 병원 울타리를 넘어 널리 순천향의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세상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4'와 '0'의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천향의 고유 3색은 항상 환자, 동료, 이웃과 조화롭게 상생 협력하는 순천향 구성원들의 모습을 그렸다.

넥스트 글로벌 순천향대천안병원의 미래비전
사랑에 사랑을 더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지난 40년 동안 괄목 성장을 이뤄낸 천안병원은 앞으로의 40년도 풍부하게 축적된 성공의 노하우와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나온 40년이 지역중심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새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40년 믿음으로 성원해준 지역주민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천안병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지방 소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킨 메이오클리닉처럼 천안병원은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을 보듬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위대한 미래비전을 완성할 것이다.



“병원발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교직원께 감사”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



- ① 수상자 단체사진.
- ② 10년 근속표창 정현준 대리, 20년 근속표창 변정숙 파트장, 30년 근속표창 정명심 팀장.
- ③ 병원장 표창을 받은 김주화 사무원, 최명순 계장, 김재현 팀장.
- ④ 3월 행복노트 수상자인 이수정 대리(대리 수상), 이명희 파트장, 이옥흔 대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지난 4월 1일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일권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을 비롯하여 서유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 등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조성용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외 45명의 교직원이 근속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김재현 전략기획팀장 외 2명이 병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중인 순천향 행복노트 우수 작성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하였다. 정일권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매일 한마음으로 쓰는 순천향 행복노트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져 출근 발걸음이 행복한 직장, 나의 사랑과 행복을 이루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되자”고 말했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구미병원의 개원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외래관 증축과 신관 리모델링, 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경북 증서부권 거점병원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3월부터 실시한 ‘순천향 행복노트’는 일상생활 중 감사, 감동, 행복한 일 등을 행복노트에 기록하고 그 감사와 행복의 기운을 전 교직원과 공유하는 순천향 행복 Dream 프로젝트이다.



섬마을 모녀^{母女}가 행복을 찾은 사연

매스컴 명이가 넘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명이는 어떤 의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

글_전진용 사진_최종엽



고령화 시대, 코로나19 펜데믹을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다. 티브이 채널을 돌리다 보면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방송에는 또 수많은 의사가 등장한다. 하나 같이 명의로 소개된다.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의사가 마치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끌며 '명의'라 칭송된다. 그 수많은 의사 중에 진정한 명이는 과연 누구일까? 부천병원에서 만난 한 모녀 환자는 망설임 없이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했다. 그 스토리가 궁금해진다.

김완주 씨(딸)와 장홍심 씨(어머니)는 모녀 사이다. 김 씨는 목포에 거주하고 장 씨는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섬에 살고 있다. 이들 모녀 사이에는 둘 다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허리가 아프다는 점이었다. 그동안의 삶의 무게가 허리에도 전해졌는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딸 김 씨보다 어머니 장 씨의 경우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으로 상태가 더 심했다. “엄마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지내셨거든요. 여러 병원도 가봤지만 별 소용이 없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수술한다고 얼마나 좋아질지 반신반의하기도 했어요.”

지난 2020년 4월 상태가 악화되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교수의 소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았다. 차로만 4시간이 넘게 걸리고 배를 타는 시간까지 더하면 5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더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순천향대 부천병원 임수빈 신경외과 교수를 만났다. 척추질환,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손상, 척추종양, 말초신경질환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수술을 집도해왔다. 활발한 진료 및 학술 활동과 ‘전방경추수술용 척추제 보형물’ 등 국제특허도 다수 보유하여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임 교수는 “처음 어머니 환자를 만났을 때 협착증이 심해 걸음을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수술을 염두에 둔 환자의 경우 먼저 환자의 증상과 척추의 병변이 일치하는지, 수술로 개선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은 환자가 기대는 마지막 단계이며 한번 수술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소개하고픈 의사

적지 않은 연세의 장 씨는 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임 교수와 의료진의 세심함은 이 두려움을 사그라트리기 시작했다. “수술 후 너무도 좋아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 걷지도 못하고 심한 고통에 잠 못 이루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으니 말이예요” 어머니는 놀랍게도 그렇게 심

했던 통증에서 완쾌됐다. 이제 소일거리도 무리 없이 하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딸 김 씨에게도 심상치 않은 고통이 찾아왔다.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심한 통증이 느껴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딸의 모습은 본 어머니 장 씨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무조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가서 임수빈 교수님을 찾아가.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셔” 그 말에 김 씨 역시 엄마의 사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터라 곧장 부천병원을 찾았다. 엄마를 기억하며 안심시켜 주는 임 교수를 마주하니 마음에 안도감부터 찾아왔다. “사실 처음 하는 큰 수술이라 무섭기도 했지만, 세심하게 설명해주며 배려하는 교수님과 의료진을 보니 엄마가 최고의 수술 의사라고 했던 말이 마음으로 느껴지더군요. 사랑하는 딸을 망설임 없이 소개해 줄 수 있는 수술 의사보다 더한 명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딸 김 씨 역시 올해 3월 25일 디스크 동반 협착증 수술 후 5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 모녀 모두의 건강을 지켜 준 임 교수님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할 부족할 거 같아요. 만약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더라도 반드시 임 교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 모녀가 아는 가장 훌륭한 척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요” 사실 이런 사연은 임 교수에게 낯설지 않다. 그동안 환자 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치료한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와 장 씨의 사연 외에도 동생이 수술하고 형을 데려온 경우(조O해, 조O한), 남편과 부인(김O환, 박O분), 동생과 누나(박O갑, 박O임), 동생과 오빠(임O희, 임O성) 등 조금만 뒤져보면 비슷한 사연이 쏟아진다. 임 교수는 “매스컴에 홍보차 출연하면 일시적이거나 찾아오는 환자 수가 늘어나죠. 하지만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보다 수술받은 환자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수술할 의사로 소개할 때 훨씬 더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매스컴 명의로다는 이런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의사의 소망 아닐까요?”라며 웃었다. 매스컴 속에 넘쳐나는 그런 ‘명의’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명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때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가장 소외된 지역에 멋있는 병원, 멋있는 의과대학 세우다

지방의 소도시를 택한 이유

순천향병원은 당시 가장 한 데인 한남동에 지었다. 부천을 제외하고 천안·구미·음성병원, 서산진료소 등 모두 대도시의 눈에서 보면 '오지'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오고 장사가 되는 입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원이 별로 없는 지방의 소도시들인 오지로 택한 것 역시 서 박사의 생각이다.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골고루 베풀겠다는 취지가 있어서다. 서 박사가 평소 얼마나 공익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1979년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의 설립을 허가 받아 경북 구미 공단 내에 순천향 구미병원을 개원했고 1982년에 순천향 천안병원을 개원했다. 서 박사는 내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서 박사의 소원은 늘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좋은 병원을 우리 나라 세우는 것이었다. 순천향 병원은 그 꿈의 시작이었다.

1979년에 설립된 순천향 구미병원.

1979년 구미, 1982년 천안, 1984년 음성에 2001년 부천에 이어 병원을 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병원을 세운 것은 보건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구석구석까지 인술의 손길을 뻗기 위해서다.

1973년 경북 구미시에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절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구미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에 비례하여 산업재해도 발생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만한 마땅한 병원 하나가 없었다. 그러던 1979년, 순천향 구미 병원이 문을 열었다. 비로소 근로자들이 믿고 찾아갈 만한 종합병원 시스템이 생긴 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별다른 계산이나 사후 보장책도 없이 단지 병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나로 큰 투자를 결정한 무모한 사람이 바로 서 박사다. 앙트레프레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1979년에 설립된 순천향 구미병원.

구미는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는 많으나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었고 천안은 농촌지역으로 의료 취약지구 중 한 곳이었다. 천안병원으로는 나중에 의학부가 옮겨가기도 했다. 개원 당시 천안병원은 천안 시내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최신식 고층 건물이었다. 평생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바닥에 부담스러웠는지 시골에서 온 노인들이 신발을 벗고 출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 박사는 앞날을 멀리 바라보면서 미리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오랜 경험과 예지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대학병원들 보다 비교적 일찍 CT나 MRI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가질 수 있었고 치료에 있어서도 선각자였다.

TV 촬영하면 무조건 순천향

당시 매스컴에서 병원을 촬영 하면 무조건 순천향 병원에 찍을 정도였다. 전국에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 순천향 병원이 가장 최신 건물에 최신 의료 기자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멋있는 병원, 멋있는 의과대학." 서석조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자주 되뇌이던 말이다. 그가 꿈꾸는 '멋있는' 병원과 대학은 환자치료와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이라는 목표를 구현해 내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이상으로 삼은 것은 메이오 클리닉이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같은 병원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 박사는 어느 자리에서나 이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하곤 했다. 미국 유학시절 경험했던 인상이 있었으리라.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을 꿈꾸며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의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해 있으며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메이오 일가를 초빙하여 개설한 세인트 메리 병원을 전신으로 하여 만든 사립병원이다. 창립 당시는 외과병원이었으나 그 후 종합병원으로 확장되었으며 100년의 역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의 최우수 병원 중 하나로 발전한 병원이다.

병원 랭킹이 존스홉킨스보다 앞에 있다. 실용연구와 암 치료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외과계열 쪽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의 유명 인사나 전세계 갑부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진료를 받기 위해 날아올 정도다. 로체스터는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지만 메이오 클리닉 덕분에 오늘날에는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있다. 로체스터시가 메이오 클리닉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딱 붙어 있는 병원이다. 메이오가 들어오기 전까지 로체스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메이오가 세계적인 병원이 되자 인프라가 생겼다. 직접 고용인구만 2만 명으로 지역사회를 먹여 살리고 있다. 서 박사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병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꿈을 순천향병원으로 이루었다. 서 박사가 '순천향병원'을 1974년 서울 한남동에 설립한 이후 당시 천안, 구미, 음성 등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굳이 병원을 연달아 세운 것은 순천향병원이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병원, 대학, 지역이 동반 발전하는 모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피흘려 쓰러진 응급환자 구한 백의천사

순천향대서울병원 박은지 간호사,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글_이미중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간호학도들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손에 촛불을 든 채 가운을 착용하고 이와 같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한다.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선서다.



박은지 간호사의 미담은 용산역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응급상황을 도운 정수환 역무원이 순천향대 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관찰, 기록하여 의사에게 알리고, 간호 활동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빠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의학, 생물, 심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꼼꼼한 성격은 필수다. 특히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더더욱 필요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간호사들이 길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이유다. 그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바로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은지 간호사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들어본다.

피 흘리며 쓰러진 70대 남성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2022년 4월 15일 오후 6시경 용산역 계단에서 낙상한 70대 남자 환자를 차분하게 응급처치하고 119대원에게 인계한 간호사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박은지 간호사다. 박은지 간호사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전철을 이용해 용산역을 방문했다. 전철

에서 내렸는데 7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박은지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시 환자에게 달려갔다. 환자는 두부 및 비강 출혈이 심하고 호흡도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우선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확인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다. 마침 사고 예방 활동 중이던 역무원의 도움으로 기도를 더 안전하게 확보하고 출혈 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어깨를 두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세동기의 준비도 요청했다.

잠시 후 도착한 119대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마치고 이송하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현장을 떠났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도 지나고, 코트에 피가 많이 묻었지만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돌봐야 할 것으로 판단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것이다.

박은지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주변의 시민들이 너무 잘 도와 주셨다”며 “어머니를 따라 간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찮게 좋은 일을 하게 돼서 뿌듯하고, 환자분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담은 용산역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응급상황을 도운 정수환 역무원이 순천향대서울병원 홈페이지에 “순천향대학교 박은지 간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칭찬의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정수환 역무원은 “박은지 간호사가 없었더라면 119를 부르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확보하라’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었는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다리를 계속 주물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섰다”라며 “간호사님 덕분에 골든타임에 할 수 있어 한 생명을 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지 간호사는 자신의 코트에 피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약속시간도 뒤로한 채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 주었다”며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이정재 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박은지 간호사.

박재홍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국내외서 인정받는 로봇내시경 수술 전문가

획기적 수술개발로 주목...주민에게는 따뜻한 의사

글_전진용 사진_전용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의 박재홍 교수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로봇내시경 수술 전문가다. 스스로 수술법을 개발하고 이를 동료의사, 심지어는 해외의 의사들에게 전수할 정도로 자신만의 수술법을 완성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문과생이었던 박 교수가 의대에 진학해 손꼽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짧지 않은 여정을 들어봤다.

名醫

박재홍 교수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다.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와 줄곧 생활했다. “고3 때까지 문과생이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꿈은 꺾 본적도 없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서울 모 대학 문과계열 학과에 합격했다. 다만 2지방 대학이라 성에 차지 않았다. 이때 의대를 권유한 이가 바로 의사였던 아버지다. “저는 수학능력평가 1세대예요. 당시에는 처음 수능으로 바뀌면서 문과도 이과에 교차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씩 의사의 길에 눈을 뜨다

19살까지 문과적인 사고로 살아왔기에 의대에서의 처음은 힘들기만 했다. “본과 때보다 처음 의과대 시절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과 수학만 하던 내가 이과 수학을 했던 친구들과는 경쟁이 안됐습니다. 수학과 생화학 등은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상과목은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노력치 않은 의대시절이었지만 하나둘 헤쳐 나가며 조금씩 의사

의 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의대에 익숙해져 갔다.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추억들도 만들어갔다. 박 교수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제주대학교 의대 후배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했던 기억을 소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제주대 의대 1학년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참여했던 때 같네요. 의대에는 전통적으로 인체의 뼈 이름을 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뼈 이름 뿐 아니라 갖가지 혈관과 힘줄 이름까지 외워야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이를 교육하고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학회에 갔었는데, 그 때 교육시켰던 후배가 교수가 되어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의 추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이렇게 어느덧 선배의 위치에도 오르고 구체적인 의사의 길을 조금씩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다.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수술을 터득하다

의사로서 나름대로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자 가고 싶었던과는 외과였다. 하지만 친한 선배의 조언이 박 교수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응급실 인턴으로 있던 선배가 수차례 이비인후과를 선택하라고 조언하더군요. 앞으로의 비전, 장점 등을 늘

어놓던 선배의 진심어린 충고가 이비인후과를 달리 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선택은 이비인후과였다. 선택 후 과정은 생각보다 너무도 힘들었다. 원망을 하기도 했다. 인체의 가장 미세한 구조물들을 들여다보며 3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 과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박 교수에게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분야였다. “아마도 은사님인 장혁순 교수가 없었더라면 포기했을 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고 사표를 냈었거든요.” 이런 박 교수에게 장 교수는 “끝까지 견뎌내고 다시 한 번 도전하라”며 격려했다. 제출한 여러 번의 사표들을 끝까지 수리해 주지 않았다.

“제 롤모델이자 멘토 같은 분입니다. 현재까지도 저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인이죠.” 힘든 과정을 참고 이겨내니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욕심도 생겨났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의 조교수 시절, 제주 한라병원에서의 1년 파견 근무,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두경부외과 로봇수술 연수 등을 거치면서 여러 수술 경험도 갖게 됐다. 선배나 스승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썼지만, 당시 병원 시설들이 큰 수술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했다.

“로봇수술, 두경부암 수술 등 하나 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로봇수술 기법을 활용해서 내시경을 똑같은 술식으로 대체하는 수술법, 즉 최소 내시경 사용을 통한 미세 침습 수술로 갑상선이나 각종 종양 수술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술법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적용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모 대학의 홍보팀 직원이 목에 침샘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암이 아님에도 일반적인 수술로는 목에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상 큰 상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은사님에게 로봇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은사님도 제 수술법을 한번 직접 시도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도한 수술은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외 의사들로 배우고 싶은 수술법 완성

박 교수의 수술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지방의 의사들도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해외 의사들도 박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에 일본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에게 후이개 두경부 수술 노하우를 전수한 일이다. 박 교수의 후이개 두경부 수술이란 얼굴, 갑상선, 침샘 등 머리와 목 부위의 종양을 귀 뒤 모발선 안쪽을 절개해 제거하는 수술. 흉터 걱정 없는 박 교수만의 환자중심 수술법이다. 2012년부터 후이개 수술을 시작한 박 교수는 풍부한 수술경험과 탁월한 치료성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높였다. 박 교수의 수술 노하우를 전수받은 일본 의사들은 후쿠이대 이비인후과 테수지 타카바야시(Tetsuji Takabayashi)와 마사푸미 칸노(Masafumi Kanno) 교수다. “이



일본 의료진에게 의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박재홍 교수.



매일 샅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주치의이자 따뜻한 이웃으로 남고 싶다는 박재홍 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으면 직접 동네 이장에게 전화를 해 치료를 돕는다.

일본 의사들이 제 후이개 수술 논문들을 본 후 수술 참관을 직접 요청해 왔었습니다. ‘후이개 갑상선 수술’, ‘후이개 악하선 절제술’ 등 2건의 수술 참관을 도왔습니다.”

박 교수는 수술을 통해 갑상선 및 악하선 절제법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후이개 접근법, 수술시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양한 수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참관했던 타카바야시 교수는 “이번 참관으로 일본의 관련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 연수를 받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 수련부장이기도 한 박 교수는 그동안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레지던트와 인턴 지원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속에 메타버스 홍보관을 개설한 것이다. 박 교수는 “예비 레지던트와 인턴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최첨단 정보 나눔터”라며, “병원 교육수련 담당자 및 선배전공의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병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이자 가장 친근한 이웃이길

박 교수는 갑상선암을 1년에 많게는 200건 정도 소화한다. 두경부암, 침샘종양, 구강암, 후두암 등 여러 기타 암들도 수백 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스웨덴 연수 이후 침샘 분야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

니다. 침샘종양 수술이나 종양수술로 인해 적출된 침샘을 재건하는 연구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만든 침샘을 체내로 이식하는 실험도 준비 중입니다.” 박 교수는 이비인후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수술들에 대한 환자의 니즈가 여전히 많다고 강조한다.

“종양이 느리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를 평생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내분비로는 갑상선, 외분비로는 침샘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의사로서 의술을 연마하고 환자에게 친절할 것은 당연한 자세”라며 “진정한 의사는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사람한테 병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의사”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 또한 수차례 강조했다. “저희 천안병원은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입니다.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우리 병원이 있어 안심하고 가족이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박 교수는 “생업 등의 이유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런 이웃들은 결국 마트, 택시 등 가장 가까운 샅속에서 항상 마주치기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치의이자 따뜻한 이웃으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으면 직접 동네 이장에게 전화를 해 환자를 설득시키고 치료를 돕곤 한다. 이런 박 교수를 통해 진정한 의사이자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귀’ 최고 명의로와 ‘코’ 전문의가 만나다

경북 중서부 권역 최고 의료진과 첨단장비 갖춰

글_전진용 사진_전종훈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년간 ‘귀’ 질환 연구에 몰두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충북대병원 출신 신시욱 교수가 지난 3월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만성중이염을 5천 케이스 이상 집도한 신 교수는 구미 뿐 아니라 김천, 상주 등 주변 생활권의 모든 환자들을 책임져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떠오르는 ‘코’ 전문의로 평가받고 있는 광기환 교수도 함께 힘을 보태며 지역 내 최고의 이비인후과로 주목받고 있다.

신시욱 교수
30년간 ‘귀’ 질환 연구에
몰두한 최고 전문가



구미병원 이비인후과는 축농증과 물혹, 만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코골이, 후각장애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 최초로 최신 수술용 네비게이션을 도입하며 경북 최고 수준의 진료 및 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축농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 비염 수술, 비중격 수술, 코성형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두경부 종양 수술, 선천성 기형 수술, 각종 중이염 수술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신 교수의 합류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술과 환자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특히 이과(귀)와 비과(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와 수술이 가능해졌다. 경북 중서부권에서 단연 최고의 의료진과 진료시설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지역 내 최고
이비인후과로 ‘주목’



광기환 교수
떠오르는 ‘코’ 전문의



30년간 만성중이염 5천건 집도...재발을 절반으로 낮춰
구미병원 이비인후과는 완벽한 의료 분담 체계를 갖췄다. 자타 공인 ‘귀’ 최고 명의로 통하는 신 교수가 만성중이염 수술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로 일주일에 4~6명의 환자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신 교수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올라 있다.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120여 편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 연구하는 교수로도 명성이 높다. 이처럼 신 교수는 ‘귀’ 분야에 있어서는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의 손을 거쳐 간 만성중이염 수술 환자는 5천여명 이상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가 만성중이염 환자라고 한다.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만성중이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교수는 “구미 지역 뿐 아니라 상주, 김천 등 주변 지역의 환자들이 대구나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지 않도록 중이염과 난청, 어지럼증 등의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중이염은 귀 안(중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 현상을 말한다. 이비인후과를 찾는 외래환자 중 감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다. 급성의 경우 발열과 통증, 별경게 부어오르는 고막의 발적 등이 대표 증상이다.

신 교수는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완치의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중이염 수술 후, 재발확률은 통상 10%다. 그것을 신 교수는 약 5% 가까이 줄였다. 100명의 환자를 수술하면 95명은 완치되며 5명 이내의 환자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 교수는 이런 통계 수치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신 교수는 “95명의 환자가 만족하고 5%의 환자가 재발해 다시 고통을 느낀다면 통계적 수치는 의미가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5%의 재발은 당

사자에게는 100%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재발없는 100% 완벽한 수술”이라고 설명한다.

돌발성 난청 · 수면장애 치료 등에도 최적화

만성중이염 외에도 신경 쓰는 분야는 돌발성 난청이다. 사회가 발달되고 점점 의료장비도 과학화되는 추세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도 늘어나고 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돌발성 난청도 그 중 하나다. 돌발성 난청은 감기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감기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청력 이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신 교수는 “돌발성 난청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와 함께 이비인후과를 이끌고 있는 광기환 교수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신 교수가 이미 널리 알려진 ‘귀’ 명 의라면, 광 교수는 이제 떠오르고 있는 ‘코’ 전문의이기 때문이다. 광 교수는 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병을 책임지고 있다. 축농증, 수면장애 등 ‘코’ 분야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수면다원 검사 자격을 취득해 수면장애에 있어서 다양한 검사와 수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면다원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면다원 검사 자격과 설비를 갖춘 병원은 그리 많지 않

다. 그래서 구미병원 이비인후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수면 중에 발생하는 질환은 보통 일반적인 질환처럼 한 장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장기의 복합적인 문제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수면다원 검사는 이런 수면 중 질환들을 진단하기 위해 뇌 기능 상태를 알기 위한 뇌파 검사(EEG), 눈 움직임을 보기 위한 안전도 검사(EOG),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한 근전도 검사(EMG),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전도(ECG), 전체적인 상태를 보기 위한 비디오 촬영 등을 같이 시행한다. 이 검사의 장점은 인체에 방사선 등의 노출이 없는 안전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룻밤의 장기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INTERVIEW

신시욱 이비인후과 교수

“지역 내 모든 환자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신시욱 교수가 구미병원에 합류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석·박사 취득 후 오랜 기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했다. 이번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인연이 닿아 지역 내 환자들을 책임지게 됐다. “이비인후과는 매우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의사로서 미세수술부터 대형수술까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신체인 귀와 코를 책임지는 분야니까요.”

그동안 30년간 귀 연구에 몰두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를 위한 진료와 수술에 있어서는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구미 뿐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의 환자 한명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사생활 내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고령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한 치료도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신 교수는 당나라 시대 임제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선어(禪語)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우리가 서있는 곳 모두 진리가 된다’는 뜻의 글귀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주인의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먼 곳에서 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대의 주인, 주관자,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기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힘을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구미병원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모든 의료진들이 항상 서로 돕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며 “이런 훌륭한 의료진들과 함께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INTERVIEW

광기환 이비인후과 교수(과장)

“환자와 더 많이 소통하는 의사로 기억 됐으면”



광기환 교수는 구미병원에서도 젊은 피의 의사 중 한명이다. 명의로 통하고 있는 신시욱 교수와 함께 이비인후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경증부터 중증, 어린환자부터 고령환자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의사로서는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구미병원은 지역 특성상 나이 많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농업에 종사는 인구가 많고 꽤 먼곳에서 어렵게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버스를 타고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들을 보면 의사로서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하나라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주민 환자들에게는 잘 소통하는 의사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광 교수는 축농증, 수면장애 등 코 관련 연구와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 귀 분야는 신 교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코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관련 질병을 도맡고 있다. “저희 병원이 항상 꿈꾸는 것은 경북중서부권 지역의 모든 환자들을 수도권이나 3차병원으로 보낼 필요 없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갖추기 위해 여러 의료진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코골이 분야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수면다원 검사 시스템과 자격도 갖췄다.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만큼 수면장애, 코골이 환자 등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금이라도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정기 기부로 신부전증 환자 도와...누적 금액 2천만원 넘어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대형 병원 앞에는 약국들이 즐비하다. 흔히 문전약국이라 부른다. 이예형 약사의 가장큰태평양약국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문 앞에 있는 많은 문전약국 중 한 곳이다. 약국 터를 알아보다 2014년 우연치 않게 상황이 맞아 이곳 한남동 병원 앞에 자리를 잡게 됐다. 그렇게 서울병원과 8년간의 인연을 이어 온 셈이다. 이제는 ‘기부’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또 다른 의미 있는 인연을 맺고 있다.

“문전 약국이라는 것이 로컬 약국과는 다른 점이 많아요. 업무 강도라든지, 약 조제의 복잡성이란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그동안 내 일에 충실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약국이름이 좀 생소하다. 주변에서는 “태평양이면 태평양이지, 가장큰태평양은 뭐야?”라고들 묻는다. 이에 이 약사는 “제일 친한 친구 약사의 약국이 태평양약국이거든요 ‘그 친구보다는 좀 더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라며 웃는다. 그러면서 “장난기가 섞인 이름이지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자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주변에 많은 약국들이 있지만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각자 약사라는 업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경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아이를 낳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다

그저 약사로서 8년간 열심히 살았다. 많은 업무로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다. 고용한 여러 약사들과 약국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벅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니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이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기부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이 약사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우연히 주변 식당의 한 사장님으로부터 “바로 앞에 있는 병원에 기부하면 되잖아. 어려운 환자들 많아”라는 말을 들었다. 이 약사는 제일 먼저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떠올랐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사회복지팀에서는 돌아오는 답은 좀 달랐다.

“아이들을 돕는 일은 이미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보다는 서울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고, 무척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병원에는 유독 만성신부전 환자가 많다. 하지만 이들을 도와주는 지자체나, 외부사회복지재단은 없다. 이 약사는 병원의 의견에 흔쾌히 응했다.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제일 힘든 분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약사의 기부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혈관 수술비용, 혈관 확장비용, 생명이지에 필요한 혈액투석에 쓰인다. 이렇게 2019년도부터 시작된 기부는 매월 50만원씩, 지난 4월까지 총 2천43만1천원이다. 이 금액으로 적지 않은 신부전 환자를 도울 수 있었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도와준 환자분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는 사회복지팀의 전화 한 통이면 그 것으로 충분했다. “기부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은 일 같아요. 기부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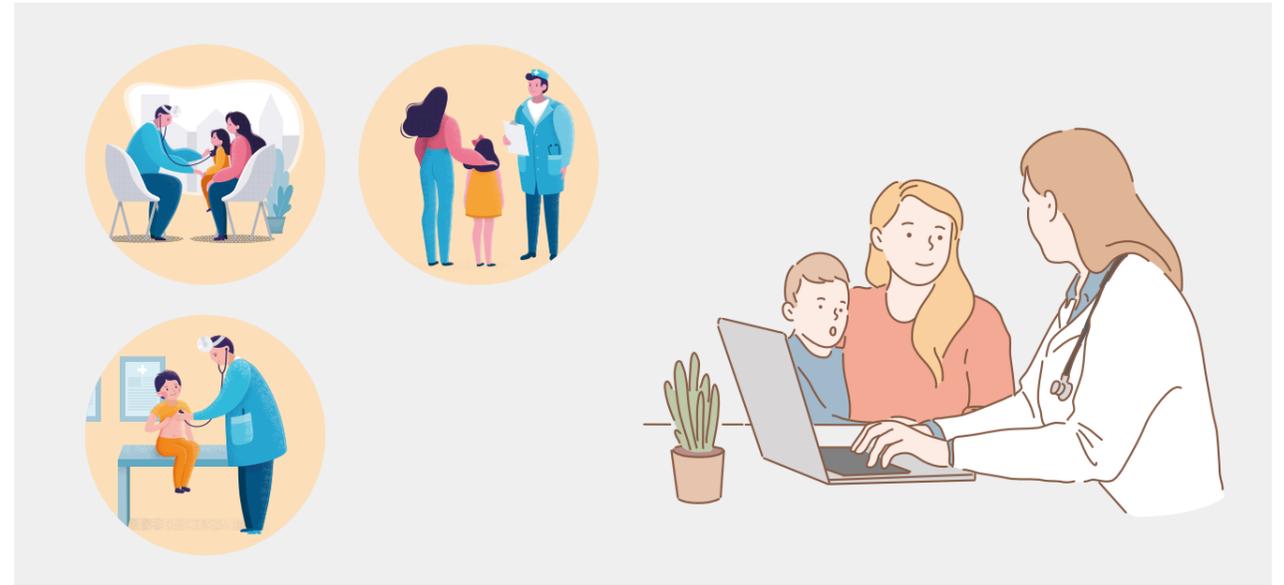
기부를 하고 환자들의 사연을 듣다보니, 생각 이상으로 더 힘든 환자들도 많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약국으로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저에게 도움을 받은 환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구구절절한 사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약사는 서울병원의 문전약국 약사이지만 또 서울병원의 환자이기도 하다. 소화기 계통과 골절 등으로 지금도 서울병원을 다닌다. “제가 병원의 시스템을 아주 잘은 모르지만, 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피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어려운 환자들은 용기를 내어 병원과 상담하고 의논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약사는 “기부를 하며 느낀 것이 ‘세상에는 그래도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이라며 “저도 문전약국 약사로서 환자들이 제일 먹기 편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순천향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리모델링

'더 가까운 외래'...환자를 배려한 모자보건센터

순천향대서울병원(원장 이정재)은 5월 6일 오전 8시 모자보건센터 1층과 2층 외래구역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2021년 11월에 착공 후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사는 편의성과 효율성, 환자들의 동선을 배려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여성 환자와 어린 환자 등 약자 배려에 중점

1층 양쪽에는 가정의학과와 국제진료센터를 설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국제진료센터에서 진료하는 점을 고려해 빠르고 친근하게 외국인 환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층은 한남동과 이태원 즉, 용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더 가까운 외래'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1층에는 모자보건센터의 기동 역할인 산부인과를 두고 독립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산모와 여성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2층 소아청소년과도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진료실과 상담실은 물론 알레르기호흡기검사실, 심장초음파실, 수유실 등 아이와 부모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갖췄다. 특히, 외래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과 동물그림 액자, 원숭이 조각인형을 배치해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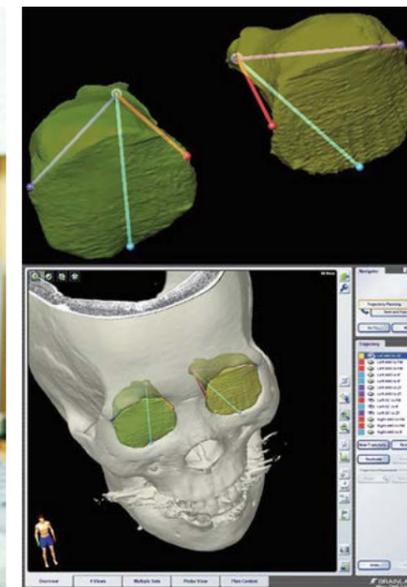


불편함 감내한 식구들께 감사...따뜻함이 배어있는 모던한 디자인

새롭게 단장한 모자보건센터 1·2층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모던함과 단아함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1층 로비에는 2개의 노출기둥을 원형으로 제작해 특색 있는 디자인 오브제로 활용했다. 또 그림을 통한 아트워크의 일환으로 가나아트와 협업해 6점의 그림도 설치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 불편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감내해주신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신장센터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환자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순천향의 마음이 환자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성형외과 신호성 교수팀, '안와골절 치료 디지털화' 초석 마련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술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듯 안전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수술하는 '3D 내비게이션' 기술이 개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신호성 교수팀이 이를 활용해 '안와골절 치료 디지털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신호성 교수(왼쪽)와 신호성 교수팀이 안와골절 치료에 활용한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오른쪽).

해당 의료기술은 신 교수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해 지난 2020년 5월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현장 도입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혁신의료기술'로도 선정됐다.

신 교수팀은 최근 성형외과학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컴퓨터 디자인을 통한 안와 재건술에서 미러링 기술 적용의 신뢰성과 안와 비대칭성 3차원 분석'이란 제목으로 연구 논문(IF: 4.73)을 발표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안와골절'은 안구 주변을 보호하고 있는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안와 재건술'을 시행하는데, 안와의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수술 부위의 시야가 협소해 과거에는 집도위의 경험과 감각, 간접적 영상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우수한 수술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신 교수팀은 안와골절 재건 수술 시 CT 촬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CAD(Computer Aided Design) 기법'과 '무탐침 정위기법술(Navigation-guided surgery)'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가이드 수술법'을 도입했다. 수술 전에 CT 촬영을 통해 반대편 정상 안와의 디지털 좌표를 얻은 후 3차원 이미지로 시뮬레이션하고, 안면 대칭성을 고려해 재건 수술 중 지표로 삼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해당 의료기술은 신 교수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해 지난 2020년 5월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현장 도입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혁신의료기술'로도 선정됐다.

신호성 교수는 "우리 병원은 관골 및 하악과두 골절 환자, 악안면 교정 환자, 안와 재건 환자 등의 수술에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무탐침 정위기법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대학병원"이라면서 "수술 환자 104명의 양측 안와 대칭성을 분석해 신의료기술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이 '안와골절 치료 디지털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임상 연구를 지속해 환자들이 기능과 심미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술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암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부인암 심포지엄 성료

순천향대 천안병원 암센터(센터장 김은석)가 4월 22일 오후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부인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암센터 개소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부인암 진단과 치료 영역의 발전 내용을 다뤘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4개 세션에서 총 8개의 연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악성종양의 분자 및 영상 검사 관련 최신정보'를 주제로 ▲부인암 환자의 PET/CT 해석과 영상판독 유의사항(천안병원 유익동 교수), ▲부인암의 분자병리학적 바이오마커 검사법(천안병원 장시형 교수) 등을 다뤘다. 유익동 교수는 부인암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ET/CT 소견을, 장시형 교수는 부인암 치료와 관련된 병리학적 소견과 검사법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난소암과 복막암의 치료'를 주제로 ▲진행성 난소암 중 복막전이 치료(천안병원 안태성 교수), ▲난소암의 종양감축 수술과 하



이펙(국립암센터 임명철 교수)의 연제발표를 통해 복막전이 난소암의 발전된 치료법과 난소암 수술에 활용되는 하이펙(HIPEC)의 역할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은 '합병증 관리'를 주제로 ▲부인암 치료 중 발생하는 대장 합병증(천안병원 강동현 교수), ▲산부인과 수술 중 발생하는 요관손상(천안병원 김기홍 교수)를 통해 다학제적 접근으로 대장 합병증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과 요관 손상의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다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치료 및 근치수술 관련

최신 정보를 다뤘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의 부인암 방사선 치료 경험(천안병원 조인영 교수), ▲자궁경부암 수술치료의 변화(고려대안산병원 장하균 교수)를 발표해 부인암의 방사선 치료법과 발전 방향, 개복·미세침습·로봇수술 등의 다양한 치료법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김은석 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은 "부인암에 대해 여러 병의원과 진료과가 모여 열린 토론회와 효율적인 치료법을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치료 성공률을 높여 암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 발표 연제는 순천향대천안병원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24시간 확대 실시

순천향대 천안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센터장 심세훈)가 4월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들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평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곳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충남권역 전담 센터로 지정받아 10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주 5일 운영되던 센터는 4월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전일운영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 전담 사회복지사 충원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심세훈 센터장은 "지금까지 4700여명의 자살시도자가 센터를 찾았다"면서, "운영시간이 확대된 만큼 자살예방은 물론 자살시도자들이 보다 빨리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의 운영시간 확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4시간 확대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충남도지사표창 등 다수의 수상이력도 갖고 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3월 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전국 212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특수건강진단의 관리 ▲결과 및 판정 등에 대한 신뢰성 ▲장비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후 관리의 절차 및 관리) 127개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S등급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명실 공히공단근로자와 지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최고의 거점병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으며, 특수건강검진 시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를 보유(GC 2대, HPLC, AA, ICPE, IC, UV-vis)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ICPE(SHIMADZU, ICPE-9820) 장비는 오토샘플러를 이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증감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가능한 것이 특징적이다.

최첨단 장비로 빠르고 정확한 분석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수준의 향상을 위해 2년 마다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1983년 특수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집단산업관리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건관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검진 후 근로자 만족도조사로 사후 관리 철저

구미병원에서는 매년 검진 후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진에 대한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검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구미병원 화학분석실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분석능력을 가진 3명의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근무하고 있

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진표, 개인표 등을 비치하여 모국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검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유소견자(D1, D2, DN)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장을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설명하고 개인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S
최우수 등급

주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항목

- 특수건강진단의 관리
- 결과 및 판정 등에 대한 신뢰성
- 장비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사후 관리의 절차 및 관리
- 그외 127개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2015, 2017, 2019, 2021년 S등급 획득.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S등급 획득으로 공단근로자와 지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최고의 거점 병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화학분석실 정현준 산업위생기사. ② 조성용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③ 폐활량검사. ④ 청력검사.



당뇨발 절단치료가 우울증 발병률 낮춰

순천향대서울병원 족부&당뇨발센터,
당뇨발과 우울증 연구



원성훈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발 치료 시 절단 치료가 지속적인 보존치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당뇨발 치료 시 절단은 치료의 실패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의 절단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속적인 보존치료의 부작용 등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보존치료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병률 높아

원성훈 순천향대서울병원 족부&당뇨발센터 연구팀(천동일, 김재형, 강은명, 안치영, 민태홍, 김상영, 조재호, 이영)이 최근 당뇨발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메디케어 청구 데이터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당뇨발 및 우울증 장애 코드를 사지 보존군과 절단군으로 나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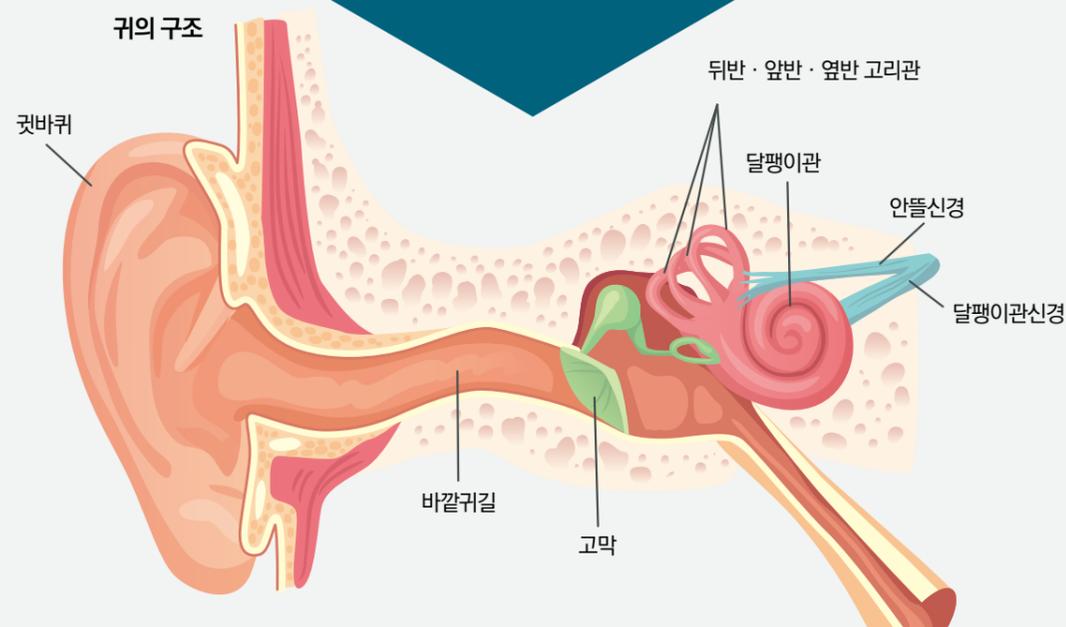
우울증 발병률은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동반질환은 Charlson 동반질환지수(CCI)를 사용해 평가했다. 우울증의 1년, 3년, 5년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사지 보존군에서는 각각 10.1%, 20.4%, 29.5%였고, 절단군에서는 각각 4.5%, 8.2%, 11.5% 였다. 다른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고, 동반질환지수가 높을수록, 사지보존군에서 보존치료의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성훈 교수는 “당뇨발 환자의 우울증은 절단이라는 하나의 강렬한 사건이 아니라, 당뇨발 상처의 빈번한 재발과 만성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만성적이고 불확실한 긴 치료 기간이 환자의 기분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절단이 당뇨발 환자의 우울증 발병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Does Amputation Negative Influence of Depression in Diabetic Foot Patients? A Population-Based Nationwide Study)’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Applied Sciences>, IF 2.679에 2022년 2월 4일 게재되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19년부터 족부&당뇨발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당뇨발학회가 인증한 센터이고,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10여개 진료과 전문의가 협진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소아 잘 걸리는 중이염 주요 원인과 치료 방법은?



이세아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급성 중이염은 고막에서 달팽이관 사이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급성 중이염은 감기 등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코와 목의 세균 및 바이러스가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을 통해 귀로 전파되어 잘 생긴다.

중이염은 유·소아에서 특히 잘 생기는데, 그 이유는 유·소아의 이관이 해부생리학적으로 발달이 미숙하며, 아데노이드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한 이관기능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창 언어와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중이염을 치료 없이 방치하면 난청과 그로 인한 언어 장애, 인지 발달 저하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급성 중이염의 주요 증상은 귀통증과 먹먹함, 기침, 콧물, 코막힘, 발열 등 상기도 감염 증상이다. 만성 중이염은 귀에 액체가 나오는 이루, 청력 저하, 이명 등 증상이 있으며, 어지럼증이나 안면 마비가 동반되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해 보호자의 관찰이 중요하다. 아이가 귀를 자주 잡아당기거나, 이유 없이 보채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소리 크기가 충분해도 TV 볼륨을 키우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성 중이염 발생 고위험군에서 발생한 고막 천공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재감염이 반복되면 '만성 중이염'이 될 수 있다. 또, 급성 중이염으로 생긴 액체가 중이염 치료 후에도 중이강 내에 고이면 '삼출성 중이염', 중이 안에 생긴 각질로 진주 모양의 종양이 형성되면 주변 연부조직과 뼈를 침식하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이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염증이 인접 구조물로 파급되면 난청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두개 내로 파급되면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급성 중이염은 중이의 점막이 자연치유 되는 힘이 강해 대부분 완전치료가 가능하다. 항생제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통증이 심하면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6개월 이상 환아에서 심한 통증과 고열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를 기다려볼 수 있다.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됐을 때 고령이거나 염증이 심하면 귀에 넣는 점막 항생제, 경구 주사 항생제 등 내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염증이 오랫동안 반복돼 중이강과 주변 뼈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중이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균·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중이염의 원인 세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급성 중이염은 간접흡연, 알레르기, 편도·아데노이드 염증, 이관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주의해야 한다. 또, 급성 중이염이 발생했다면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파킨슨병과는 다른 '파킨슨증후군'은 어떤 병?

파킨슨증후군은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비정형성 파킨슨병, 비정형성 파킨슨증후군 또는 parkinson plus라고도 불린다. 이는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자세불안정, 보행실조, 자율신경장애 등 신경계 다른 이상이 추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크기는 퇴행성 뇌질환, 즉 노화와 관련된 질환군에 속하는데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 주로 뇌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각 질환별로 신경계 침범 증상이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침착되는 루이소체병, 다계통위축증과 타우단백질이 침착되는 진행성 핵상안 마비, 피질기저핵 변성 등의 질환이 있다.

파킨슨병과 구분 어려워

파킨슨은 자체의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환자들 스스로 파킨슨과 비정형성 파킨슨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실 환자들은 파킨슨 관련 불편함을 해결하러 병원에 내원했을 때 파킨슨과 비정형성 파킨슨이 초기



박종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치료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비정형성 파킨슨병은 진행이 빠르고, 악화되면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워낙 드문 질환이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

증상만큼 질환도 다양

초기부터 증상이 보이는 경우와 치료과정 중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자율신경장애나 소뇌기능장애가 관찰되면 신경계 다른 계통이 침범된 다계통위축증을 의심하게 된다. 또 파킨슨과 치매가 함께 있다면 루이소체치매를 의심하게 된다. 만약 넘어짐을 주증상으로 한다면 진행성핵상안마비를 의심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형적인 파킨슨병을 보이던 환자에게서 약효가 떨어지면서 처음에 치료되던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는 신경계 다른 계통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의심하게 된다.

증상별 치료, 완치 방법은 없어

비정형성 파킨슨병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완치 개념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환별로, 환자별로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계통위축증은 기립성저혈압 등 자율신경장애가 특징인데 기존 고혈압 치료를 받던 경우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운동 요법도 중요하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루이소체치매의 경우 파킨슨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파민 약물 투여로 환각 환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제한적 투여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치매약을 쓰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

가 많다.

예후 불량, 삼킴 장애가 악화 신호

대체로 예후가 나쁜 게 특징이다. 퇴행성 뇌질환 특성상 완치가 가능한 치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증상이 다양한 만큼 경과도 다양하다. 초기에 악화되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양호하게 유지되다 급격히 나빠지기도 한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다계통위축증 타입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6~10년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삼킴장애가 생기는 시점부터 예후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즈음부터는 생존을 위해 합병증을 막는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영양결핍 없는 올바른 식습관 중요

퇴행성 질환에서는 약물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우선 식단을 잘 짜서 영양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게 좋다. 특정 영양결핍이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장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사습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병이 진행하면서 삼킴장애 등으로 식사를 제한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빨리 영양공급 수단을 확보해서 신체 능력이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비정형성 파킨슨증후군은 희귀 질환이다.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생활이 매우 어렵고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나쁜 병이다. 하지만 오랜 단계를 거쳐 병이 발병하고 이후에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필요하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져서야 병원을 찾아오는 안타까운 환자들 이 많다. 무언가 예전보다 나빠지는 현상이 있다면 꼭 진찰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할 것을 당부 드린다.



남성의 골칫거리
‘전립선비대증’
‘홀미움레이저’ 수술 효과적



홀미움레이저 발생장치와 수술모식도



김재호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서 크기는 약 20cc 정도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분비선 조직과 이를 둘러싼 섬유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도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배열되어 소변과 정액이 지나는 통로 역할을 하므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는 경우 배뇨와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의 증식은 40-50대 이후의 중년 남자에게 생기기 시작하여 노화와 함께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커지며 이것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배뇨시 요류저항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동양인의 전립선비대증 발병율이 서양인에 비해 낮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동서양 간에 발병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배뇨증상으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과 배에 힘을 주어 배뇨하는 일이 많아지는 폐색증상과 하루 8회 이상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 힘든 절박뇨나 절박요실금,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2회 이상 일어나는 야간빈뇨 등의 자극증상도 있습니다. 두 증상 모두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전립선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요법 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불편 정도가 심하거나 전립선이 아주 커서 합병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수술로 커진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낮추는 것이 환자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전립선절제술이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홀미움(Holmium)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장점이 커서 시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도내시경을 이용하여 80W의 고출력 홀미움레이저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수술 중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치료 효과면에서도 기존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홀미움레이저 수술 후 5년째 추적 한 장기 성적에 관한 보고에서도 배뇨증상 개선효과가 잘 유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의 증상들은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여겨서 적절한 치료를 지체하면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나 혈뇨, 반복적인 요로감염, 방광 결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신장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므로 중년의 남성이 배뇨장애가 있다면 비뇨의학과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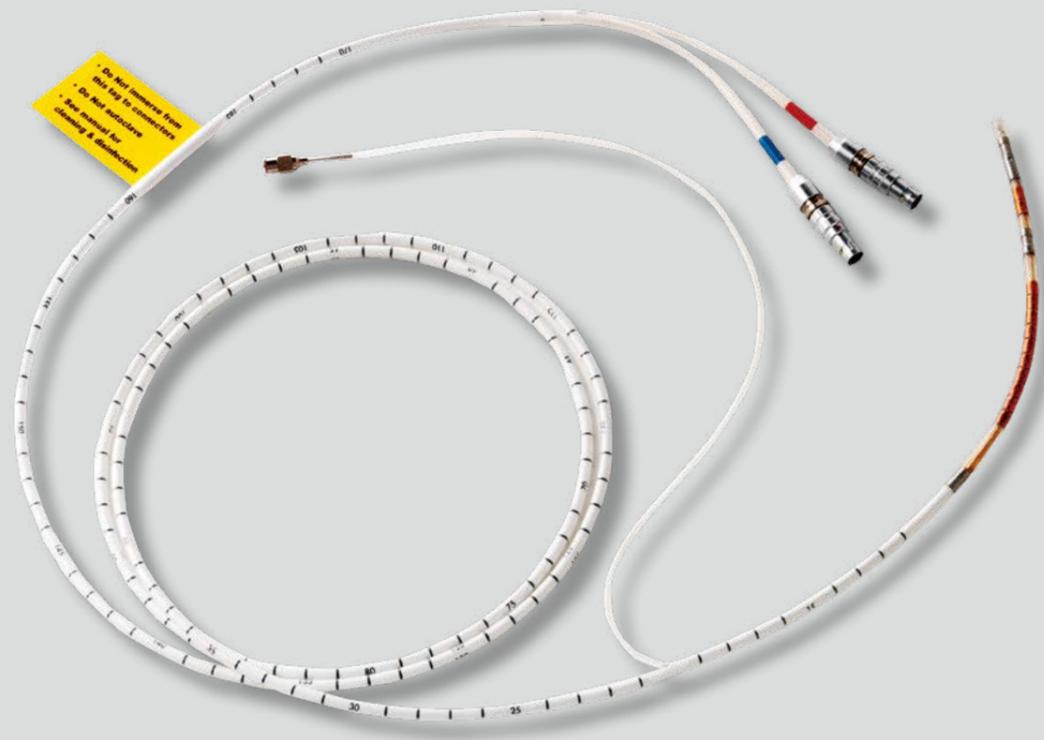
고해상도 항문직장 내압검사

기능: 직장과 항문의 기능을 평가하여 배변 생리의 이해를 돕고 배변 질환의 병태 생리를 규명하는데 유용함

특장점: 난치성 변비, 변실금, 항문직장통 환자의 원인을 찾고 향후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대상질환: 난치성 변비, 변실금, 항문직장통

기타 참고사항: 국내 다수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항문직장 내압검사는 기존의 항문직장 내압검사로 배변 질환의 병태생리를 평가하고 있지만 본원에서는 최신 장비인 고해상도 항문직장 내압검사로 이를 수행하고 있음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 개최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는 4월 20일 '2022학년도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을 개최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산업으로 교육에 정보통신기술(ICT)인 VR, O2O, 메타버스 등을 접목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특강은 가속화되는 온라인 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대학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으며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몽골 보건부 차관, 의료기관 시찰차 순천향대서울병원 방문



에르데밀렉(Tsevegmid Erdembileg) 몽골 보건부 차관과 보건개발센터 관계자 등 7명이, 3월 1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을 방문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는 외래와 검사실, 건강증진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정재 병원장 등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진과 환담을 나눴다. 이정재 병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와 순천향대병원 방문이 몽골 의료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병원에도 몽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더욱 정성을 다해서 순천향의 인간사랑이 몽골에도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0월 몽골 보건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현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캄보디아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개원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3월 28일 오전(현지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유일 이비인후과 전문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비인후과 병동은 현대식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5층 규모(4,177m)로 7개의 수술실과 3개의 병동(총 128개 병상), 집중치료실, 회복실, 진료실, 검사실, 약국 등을 갖추고 있다. 또 내시경 시스템, 초음파 장비 등 60여종 700여개의 의료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은 코이카 '캄보디아 양두영 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사업'의 사업관리 기관으로 2018년 병동 설계단계부터 의료기자재 지원, 의료진 교육과 운영 컨설팅 등을 담당해왔다. 향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양두영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두경부 관련 분야의 다학제 협진을 위한 치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분야 의료진 연수도 함께 실시한다.

청년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13년간 432명 배출



순천향대는 올해 35명의 글로벌 청년 무역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0개 대학에서 2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충남에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다. 순천향대 GTEP사업단은 2009년 출범 후 432명의 청년 무역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무역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무역 이론 교육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출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16기는 34명으로 다음 달 열리는 태국 식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순천향대, 제8·9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열어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내에서 제8·9대 총동문회장이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효현 신임 총동문회장(9대)과 황대연 이임 회장(8대)을 비롯한 역대 총동문회장, 문용원 사무처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자, 총동문회 지역 지부장 및 사무국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백회장은 "대학과 동문회는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학의 발전이 동문회의 발전이고 동문회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백 신임 회장은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수산학 석사,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일시마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총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병원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평가 인증 획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이 3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도입 후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평가인증제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2022년 3월 11일~2025년 3월 10일)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곳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적절성 등을 충족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

배정철 (주)배정철어도 대표, 발전기금 기부



배정철 (주)배정철어도 대표가 3월 2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부했다. 2007년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를 시작해 현재까지 2억7천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배정철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순천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IG, 김동원 교수, 김귀숙 부센터장 병원에 기부금 전달



LIG그룹과, 김동원 병리과 교수, 김귀숙 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이 3월 23일 서울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LIG는 자선의료 후원금 5천만원을 기부했고, 김동원 교수와 김귀숙 교수는 각 1천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최홍준 (주)LIG 대표이사는 "얼어붙어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코로나19 회복 클리닉> 개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은 기존의 선별진료소가 있던 분관 앞마당에 설치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 가능하다. 전용 창구에서 접수하고 공통적인 문진을 받고 1차 진료와 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약 처방을 받고 이후 전문적인 진료과로도 협진을 받게 된다. 진료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이후에도 기침이나 피로감, 가래, 목의 이물감,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개원48주년 기념식 개최, 이현옥 회장 3억원 쾌척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4월 1일 동은대강당에서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근속 및 모범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이현옥 (주)상훈유통 회장이 병원발전기금을 기부했다. 30년 근속 표창은 중앙혈액내과 원종호, 소아청소년과 이우령, 병리과 김동원 교수 등 20명이, 20년 근속 표창은 안과 이성진 교수와 안전보건관리팀 진현수 계장 등 38명, 10년 근속 표창은 정형외과 김용범 교수와 약제팀 신미란 과장, 재활치료팀 윤대석 대리 등 32명이 받았다. 모범직원 표창은 내과 장민경 전공의를 비롯 병동간호팀 김정숙 계장, 에스텍 김준수 주임 등 15명이 수상했다. 이어 (주)상훈유통 이현옥 회장이 병원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했다. 이현옥 회장은 1975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인연을 맺고 2013년부터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재영 연구부원장,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장재영 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 교수)이 4월 21일(목)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된 '병원인상 창간 36주년 기념식 및 제12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장재영 연구부원장은 2015~2016년 대한간학회 홍보이사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를 역임하면서 C형간염항체검사의 국가검진포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대한간학회와 질병관리청의 바이러스 간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대한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 개정위원장을 맡아 2021년 성공적으로 편찬했다. 병원에서는 올해부터 연구부원장을 맡아 연구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과학 CEO과정 59명 입학식 개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3월 24일 오후 6시 동은대강당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제34기, 59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김희수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문을 연 입학식은 오프닝 공연과 1부 입학식, 2부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했다. 입학식은 내빈소개, 입학생 소개, 이성진 건강과학CEO과정 원장 인사말, 서교일 이사장 환영사,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CEO과정 총동문회장 축사 등이 이어졌다. CEO를 위한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2003년 국내 최초 의학전문 과정으로 개설했다. 현재까지 약 2천여명의 원우를 배출했다.

부천병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견연구 2건'과 '우수신진연구 2건', '생애 첫 연구 4건' 등 총 8건이다. '중견연구' 지원사업은 ▲박춘식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세포외기질 형성과 관련된 EPB41L3의 역할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 '골수염 모델에서 3D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AgNPs 혼합 골지체의 치료 메커니즘 규명'이 선정됐으며, '우수신진연구' 지원사업은 ▲이시형 안과 교수, '망막 오가노이드 유래 엑소좀을 활용한 녹내장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 ▲최서연 영상의학과 교수, '체장 내 유두상 점액 중앙 환자의 체장암 발생 예측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예측 모델 개발'이 선정됐다. 또, '생애 첫 연구' 지원사업은 ▲김웅빈 비뇨의학과 교수, '간질성 방광염-통증성 방광 환자의 소변 마이크로바이옴과 항균펩타이드 Human Beta Defensin 2의 관계 분석', ▲백애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분석 및 치료 타깃 발굴',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학교 준비도', ▲이유민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 기능성 장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성 분석' 등 4건이 선정됐다.

부천병원 연구진, 정부 지원 연구 과제 8건 선정

부천병원 연구진이 최근 8건의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선정돼 최대 4년간 17억 2천5백만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활치료팀 정주희 파트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재활치료팀 정주희 작업치료 파트장이 정부세종청사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주희 파트장은 지난 20여 년간 부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혁신적인 작업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상 현장에 적용해 타 의료기관의 혁신 모델이 됐다. 또, 관련 저술 활동과 교육 등 후배 양성에도 힘썼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주민 재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했다.



성형외과 차한규 교수, 미국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성형외과 차한규 교수가 최근 열린 미국성형외과학회 100주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James Barrett Brown Award)'을 수상했다. 미국성형외과학회(AAPS) 최우수 논문상은 지난해 발표된 성형외과학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한다. 차한규 교수는 지난해 1월 '패러다임의 변화: 중증 하지 림프부종 환자에서의 림프관정맥문합술 치료'라는 연구 논문을 최고 권위의 미국성형외과학회지에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7년 연속 1등급 획득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외래 진료한 의료기관 6,44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7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천안병원



피부과 정의현 교수, 한국한센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천안병원 피부과 정의현 교수가 한국한센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센병 발굴 및 신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지난해 5명만이 한센복지협회에 신고 될 정도로 발견 자체가 어려운 질환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피부질환으로 내원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를 한센병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고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 수상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가 고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을 수상했다. 고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은 의사자인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회생과, '편견 없는 정신건강'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화영 교수는 지난해 '임세원 교수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프로그램(보고 듣고 말하기) 2.0 버전'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해 논문을 발표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주축으로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의 성과를 분석해 2020년까지 130만명 이상의 생명지킴이가 배출된 성과를 조망해 주목을 받았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천안병원이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만성호흡기질환인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전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1년 1회 이상의 폐기능검사 시행률 ▲합병증과 급성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 방문 환자 비율 ▲적절한 흡입치료제 처방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평가에서 천안병원은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경외과 오재상·SIMS 이만열 교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착수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이만열 교수가 공동으로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 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오재상·이만열 교수는 최근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 공모한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분야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동종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전임상연구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4년간 약 18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장기이식센터 행정사무실 개소

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배상호)가 행정사무실 문을 새로 열었다. 배상호 센터장 등 장기이식센터 관계자들은 4월 18일 박상흠 병원장, 백무준 연구부원장 등 병원 임직원들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 새병원 건립 전 시설 팀 앞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장기이식센터 행정사무실은 장기이식 관련 상담을 비롯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를 연결시키고 관리하는 업무, 장기이식 관련 각종 연구 등을 담당한다. 천안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장기이식은 간, 신장, 체장 등이며, 센터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이식수술은 100여 건에 달한다.

소아청소년과 박준수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공로패 받아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준수 교수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2020년 7월부터 1년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제25대 학회장으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박준수 교수는 순천향대의대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I) 면역학교실 및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연수했다. 1991년 우리병원에 부임해 부원장, QI실장 등을 역임했다.



구미병원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제3·4대 대표 이·취임식



햇살아이지원센터는 3월 3일 병원 항설교육관에서 제3·4대 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일권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을 비롯하여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 등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4대 대표로 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가 취임하였다. 황성일 신임 대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수고하신 3대 대표 김태우 교수님과 역대 대표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정일권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황성일 교수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방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지역유관기관과 함께 희망의 빛이 되어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실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햇살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 100만원을 쾌척하였다.

구미병원, (주)태원에프씨와 (주)강미사로부터 방호복 1,400벌 기증 받아



구미병원은 4월 18일 (주)태원에프씨와 강미사로부터 방호복(레벨D) 1,400벌을 기증 받았다. (주)태원에프씨(김학원 대표)와 강미사(강미훈 대표)는 부산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종

업계 사업체로 최근 정부의 방호복(레벨D) 지원이 중단되어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고심하던 중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방호복을 기증하게 되었다. 기증된 방호복은 약 1,000만원 상당의 개인보호장비 레벨D로 코로나19 관련된 검사와 환자진료 등 감염위험노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관련 교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일권 병원장은 “의료현장에 지속적으로 쓰이는 방역물품을 후원해 주신 (주)태원에프씨와 (주)강미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각계각층의 격려와 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환자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선별진료소, 중등증 환자병실, 백신접종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리 전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정형외과 김대근 교수 연구팀, '2022년 A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3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A바우처 지원사업'에 김대근 교수(정형외과) 연구팀이 선정됐다. '2022년 A바우처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중소·벤처/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최적의 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특히 의료분야 대해서는 75개 내외 과제로 별도 선정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이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솔루션비, 인프라 구축비 등 과제당 최대 3억원(총예산 98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이번 연구는 김대근 교수 연구팀이 지역에서 최초로 X-ray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골반 주변 골절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CT와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김대근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로 추후 다른 인체부위로도 범위를 넓혀 가겠다”며, “의료질 향상은 물론이며,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1등급

구미병원은 3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지역유일 4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전국 6,443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 7

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발견,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 황헌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의료진과 전 교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호흡기 환자들의 진료가 중단 없이 이어져왔다”며, “구미와 경북지역 호흡기 환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